

DSU 30th Anniversary
- 서른 살 청년
동서대학교의 잊지 못할
30가지 이야기
- 2030 New Vision, '3Es'

DSU의 힘
창의력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소

도전하는 청춘
미래 유망주들이 써내려간
위대한 기록

DSU NEWS





Cover Story

2022년은 동서대학교가
서른 살이 된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그동안
대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DSU NEWS

2023 Vol. 382

동서대학교 매거진 <DSU NEWS> 통권 382호

발행인 장제국 발행일 2023년 2월 21일

발행처 동서대학교 종합홍보실

디자인·제작 굿디자인연구소

※ 본 인쇄물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Special Theme DSU 30th Anniversary

06

특집 1

서른 살 청년 동서대학교의 잊지 못할 30가지 이야기

12

특집 2

2030 New Vision, '3Es'

14

특집 3

30주년 기념행사 돌아보기

18

특집 4

DSU 30th Anniversary의 주역을 만나다

-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 30년사 편찬위원장 하강진 교수

20

특집 5

동서대 30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4



24



34

22

DSU의 힘 ①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지속가능발전센터장 이명희 교수

24

DSU의 힘 ②

창의력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소

- 광고홍보학과 3학년 유지호, 성민재, 서채빈, 정현우 학생

- 방송영상학과 3학년 박혜원, 4학년 한영인 학생

28

글로벌 스토리 ①

세상을 향한 탐험! 또 다른 나라 발견하다

- SAP USA

- SAP JAPAN+

- 덴마크 올보그대학, 남덴마크대학 연계 학부생 해외교육 프로그램

-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34

글로벌 스토리 ②

Welcome Back to DSU!



36



46

36

동서인스타그램

- 영화 '정순' 정지혜 감독(영화학과 14학번)

- MBN 영상취재부 안동균 촬영기자(방송영상학과 08학번)

-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정다연 PR Officer
(캠퍼스아시아학과 12학번)

40

도전하는 청춘

미래 유망주들이 써내려간 위대한 기록

46

희망을 나누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 사랑의 온도를 높일 때입니다

48

동서대 오늘

장제국 총장, 제10대 총장 연임 외

약속의 땅에서 일군 30년 교육의 역사

DSU 30th ANNIVERSARY



동서학원 설립자 故장성만 박사는 항학열에 불타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부산의 현안인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년제 대학 설립을 계획했다. 1982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학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1991년 '동서공과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1992년부터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다. 그것이 동서대학교의 시작이었다.

8개 학과 400명의 작은 공과대학으로,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3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 현지 캠퍼스를 거느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新명문 사립대학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동서대학교가 길러낸 5만여 명의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학교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며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일구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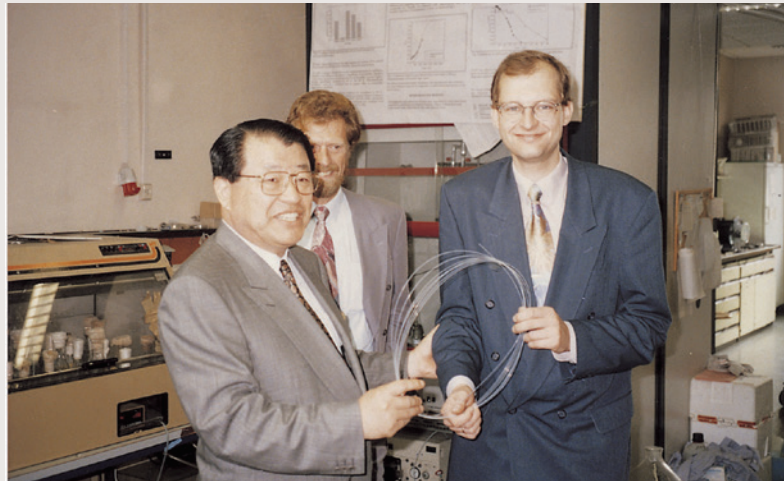


서른 살 청년 동서대학교의 잊지 못할 30가지 이야기



정식 설립인가 1991. 11. 15.

부산의 대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자 장성만 박사가 1982년부터 설립 추진한 4년제 대학인 동서공과대학. 설립 추진 10년째가 되던 1991년 11월 15일, 동서공과대학 설립인가 신청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정식 인가 되었다.



동서공과대학 개교 및 제1회 입학식 1992. 3. 3.

첫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른 동서대학교는 신입생 400명과 교직원, 대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및 입학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같은 해 3월 4년제 대학 교명에 '교'를 붙일 수 있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듬해 1993년 3월 1일 '동서공과대학교'로 개칭했고, 학장의 직함도 총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학부제 전면 실시와 정원 증가,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교명을 동서공과대학교에서 '동서대학교'로 변경했다.



독일 베를린 공대,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천대학 등 국제교류 1996

학문 연구에 대한 국경을 허물고 교수 및 학생교환, 문헌 정보의 교류,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연구활동 범위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해외 대학과의 교류가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것이 1996년 10월 15일 독일 베를린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Berlin)과의 석·박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협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천대학(1996. 4.), 뉴질랜드 UNITEC공대(1996. 8.) 등과 각각 학술교류 협정을 맺었다.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하는 국제기술봉사단 결성 1996. 2. 27.

1996년 국내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국제기술봉사단을 창설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술과 문화를 전수해오고 있다. 매년 선발된 동서대학교 학생들은 여름방학 현지에서 네덜란드, 홍콩, 일본 등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피 땀 흘려 교육의 터전인 이 냉정골을 일구며,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왔다.
달려온 시간 동안 위기에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보란 듯이 극복하며 성장해 온 역사 속 잊지 못할 30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내 본다.

C.T. Vision 비전 2000 선포 1996. 6. 3.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일찍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컴퓨터 교육에 공을 들였다. 전국 대학 최초로 종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제2단계 전산화 사업인 'C.T.(Communication Technology) Vision 2000' 선포식을 열고, 전국 최초로 인터넷 원격화상강의를 시험 실시했다.



세계화선언문 제막식 및 세계화 선언 서명식 1997. 2. 17.

1996년 10월 교육부가 평가한 세계화 정보화 부문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교육의 세계화'를 선언했다. 같은 해 12월 5일 교육의 세계화 선언문을 채택하고 그 내용을 기념조형물에 새겨 1997년 2월 17일 제막식을 가졌다.

박동순 총장 시대의 개막 1999. 2. 23.

1999년에 제4대 총장을 시작으로 출발한 박동순 총장은 2003년 5대, 2007년 6대까지 연임했다. 그는 'The Only One'과 'Top Ten & To the World'를 대학운영 슬로건으로, 세계 유수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중국과 일본, 미국 현지에 대학 캠퍼스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국제 교류 성과들을 일구어 내며 동서대학교를 新명문사학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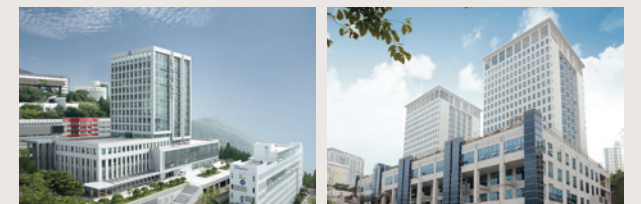


누리사업 최다 5개 사업단 선정 2004. 6. 16.

1996년을 시작으로 1998년, 2000년, 2001년 네 차례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전국대학 학문평가에서 '교양교육 디자인 교육 분야'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과감한 대학개혁 및 교육내실화의 결과들은 2004년 지방대학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최다 선정으로 마침내 꽃을 피웠다. 동서대학교는 전국 사립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사업(5년간 521억 원 지원)에 선정됨으로써 교육계는 물론,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선정된 분야는 디지털 영화·영상콘텐츠, 유비쿼터스 IT, ERP(전자적 자원관리), 한상네트워크 지식서비스경영, Inno Value 디자인 등 5개다.

첨단 교육시설의 확충과 설립 1998 ~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위해 첨단 교육환경 구축에 공을 들였다. 디자인계열 특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1998년 디자인홀 구축을 시작으로 2003년 단위대학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디지털콘텐츠 테크노타워인 뉴밀레니엄관을 건설함으로써 첨단 시설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전국 대학 최초의 IT기반 특성화 교육의 장인 '유비쿼터스 체험관', 2010년 외국인 유학생 생활관과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글로벌 빌리지', 산업 현장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미래형 강의실인 '미디어아웃렛' 등을 연이어 구축해 나갔다.





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각종 연구소 설립 2003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기관들을 설립해나갔다. 2003년 9월 4일에는 일본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차세대 지도자 간 교류를 추진하는 '일본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후 2015년 9월 16일 영남권 중국 관련 학술 활동 및 중국학 연구자들의 교류 협력을 위해 '중국연구센터'가 개소했다. 2017년에는 부산·한국·아시아 문화가 가진 가치를 디자인을 통해 연구하는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가 개설되어 아시아 지역 대학 교육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연구 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중국 상해공정기술대학교와 멀티미디어디자인 공동교육과정 2003. 9.

상해공정기술대학교 공동으로 한중 합작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을 설치했다.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교수를 파견해 수업하며 과정 중 3학년 2학기 한 학기 동안 동서대학교에서 유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종합평가 발전전략 및 비전 분야 전국 1위 2005. 2. 21.

끊임없는 대학 혁신의 결과 각종 대학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2005년 2월 21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제2주기 대학종합평가 중 '발전전략 및 비전' 분야에서 전국 1위,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되면서 대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삼성경제연구소 선정한 전국 Best 4 대학에 선정 2005

국내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하는 '대학혁신과 경쟁력' 분야에서 전국 Best 4로 동서대학교와 성균관대, 포항공대, 한동대를 선정해 주목을 받았다. 4개월 동안 서면 조사·현장 조사 등을 통해 4개 대학이 혁신과 경쟁력에서 가장 앞선 대학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세계총장회의 개최 및 세계 22개 대학 동서세계화 공동 선언 2006. 6. 9.

부산지역 대학에선 처음 열린 대학 총장들의 국제회의로, 미국·중국·일본·독일·핀란드·뉴질랜드·캐나다·말레이시아·러시아·인도네시아 등 12개국 21개 자매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총장들은 국제교류·복수학위 프로그램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세계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DSU의 대표 글로벌 프로그램, SAP의 시작 2007

SAP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프국제대학(Hope International University)과 중국 우한(武漢)시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더 넓은 세계 속에서 학생들의 안목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두 나라의 성공적인 성과에 힘입어 2017년부터 일본 SAP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출범 2008. 3. 7.

한국 최초로 영화감독의 이름을 딴 영화대학인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은 영상매스컴학부의 영화전공, 공연예술학부의 뮤지컬전공과 연극영화연기전공 세 학과를 주축으로 문을 열었다.



한중국제교육학원 개교 2011. 9.

중남재경정법대학과 합작한 '한중국제교육학원'이 개교했다. 국내 대학 중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학교 설립을 허가받은 첫 대학으로, 중국 우한 중남재경정법대학 내에 설립되었다. 게임 및 애니메이션, 영화 및 디지털 전공을 운영 중이며, 1, 2, 4학년은 중국 현지에서, 3학년은 동서대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양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장제국 총장의 새로운 도전 2011. 3. 7.

제7대 장제국 총장이 취임하며 다시 한번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장제국 총장의 대학 운영 철학은 'Before Dongseo After Dongseo(BDAD)'라는 슬로건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이 동서대학교를 졸업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자 한 것이다. 이후에도 'NEXT DSU, NEW VISION'과 '미래형대학' 선포 등을 통해 대학과 인재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CAMPUS Asia 사업 선정 및 학과 신설 2011. 11. 3.

한국과 일본, 중국이 함께 추진한 교육협력 사업인 CAMPUS Asia 사업에 선정된 동서대학교는 중국의 광둥어외무대학,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과 독자적으로 학부 교과과정을 만들어 운영했다. 3국 교육부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 과정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는 '동아시아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이 3국 캠퍼스 모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내 미주캠퍼스 설립 2011. 1. 24.

2007년부터 시작된 미국 SAP는 2011년 2학기부터 파견인원, 지원규모, 교육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2011년 1월 24일 박동순 총장과 호프국제대학의 존 데리 총장이 '동서대학교 미주 분교 설립에 관한 학술교류협정'을 맺음에 따라 호프국제대학에 미주캠퍼스가 설립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New UI(대학통합이미지) 선포 2012. 9. 20.

개교 20주년을 맞이해 UI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기존의 둥그런 외형을 유지하면서 20년간 써오던 원자부호를 빼고 'DSU'를 중점적으로 시각화해 국제화를 위한 교육 철학과 미래 비전을 표현했다. 그라데이션을 적용한 DSU는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인 BDAD 교육철학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해운대 센텀캠퍼스 공식 오픈 2013. 3. 28.

해운대구 우동 1만 6,532㎡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18층의 센텀캠퍼스가 건립되었다. 인근에는 부산영상위원회, 부산촬영스튜디오, 부산시청차미디어센터, 부산문화재단, KNN방송국이 위치해 있어 영화·영상과 공연예술 교육에 최상의 장소다. 특히 센텀캠퍼스 안에는 1,126석 규모를 갖춘 소향뮤지컬씨어터가 들어서 있어 예술분야 특성화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평을 받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을 운영 중이며 또한 2018년에는 벅스코와 부산관광공사 등 관광·컨벤션 산업이 집중된 해운대에서 관광교육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학부가 이전했다.

**각종 국책사업 선정** 2013 ~

정부 및 국내 기관들로부터 대학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아, 매년 국책사업에 꾸준히 선정되고 있다. 2013년 부산 사립대학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대학특성화(CK)사업에 5개 사업단이, 2016년에는 1개 사업단이 추가됨으로써 부산권 최대 6개 사업단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2017년에는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사업(ACE+)에도 선정되었다.

**세종학당 개소** 2015. 8. 9.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세종학당 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25일에는 러시아에, 2020년 6월 11일에는 미국에 세종학당 설립인가를 받았다. 미국 세종학당은 텍사스주 소재 세인트메리대학교(St. Mary's University)가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이로써 동서대학교는 리투아니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등 4개국에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과 협정** 2015. 6. 29.

아시아, 유럽의 명문 대학들이 동서대학교 특성화 분야인 IT, 디자인을 배우겠다며 공동학위과정을 연이어 개설했다.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과는 디지털콘텐츠분야 대학원과정 '1+1 협정'을 맺었으며,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학들과도 학사 및 대학원 과정에 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학생 2,000명 시대를 열게 되었다.

민석교양대학 출범 2017. 3. 8.

교양교육의 폭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양교육원을 민석교양대학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어와 영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등 과학기술시대를 대비하는 기초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소양교육과 교양학위 트랙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International College 설립 2019

유학생들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설립된 GSI를 'IC(International College)'로 재편해 글로벌 전공과정을 더욱 강화시켰다. GSI에 있던 경영, 영화, 컴퓨터,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사학위 프로그램 외에 해외 대학과의 협정으로 전공과정, 한국어 또는 영어과정 등 학점교환이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입생 영어프로그램과 재학생 영어 교양과목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2019. 5.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을 둔 대학혁신계획을 평가한 뒤 예산을 지원해 대학발전을 돕는 사업이다. 2019년에 1주기 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2019~2021) 약 66억 원을 받아 대학교육혁신에 발판을 마련했으며, 2022년부터는 2주기 사업에 돌입해 3년간(2022~2024) 매년 43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동서대학교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특성화 교육 강화에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다.

LINC 3.0사업 선정 2022

2012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을 시작으로, 2017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2단계를 진행하며 오롯이 '문화콘텐츠'에 집중해 온 동서대학교는 지금의 문화콘텐츠 특화 대학의 면모를 갖게 되었다. LINC 사업이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 2022년 5월, 동서대학교는 다시 한번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에 선정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문화콘텐츠'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019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돼 사회와 산업을 위한 문화콘텐츠 AI·SW융합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덕분입니다’ 동서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2022. 9. 1~7.

지나온 30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30주년 기념식, 명예박사학위 수여, 학술대회, 작품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교내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2030 New Vision, '3Es'

100년을 이어나갈 미래형 대학으로의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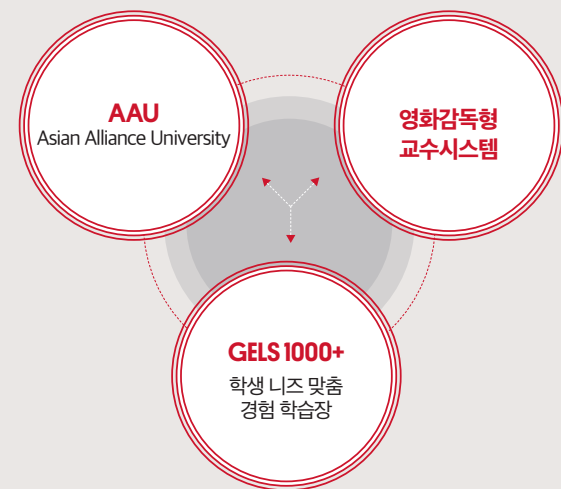
장제국 총장은 2022년 9월 6일 개교기념식에서 30주년을 기점으로 한 새로운 '2030 New Vision'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금과 같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전통적인 사고와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남들과는 확연히 다른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화된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을 완전히 Redesign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학 비전의 새로운 중심가치인 '3Es 전략'을 대외에 공표했다.

Everywhere는 학생들에게 세상 어디서든 배움의 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 대학인 AAU(Asian Alliance University)를 설립하는 것이다. 전 아시아에서 모집하게 되는 AAU학생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AAU에 접속해 동서대학교에서 송출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 이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다. 학생들은 2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협정 대학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학점을 이수한 후, 3학년이 되면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와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또 하나는 '유목적 교과시스템'의 도입이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 교육체제인 '영화감독형 교수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교수는 핵심과목을 담당하는 한편, 영화감독처럼 과목 설계와 교수 요원들을 현장 전문가로 섭외해 팀 티칭을 진행하고, 과목 종료 후엔 수업을 해산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장감 넘치는 최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상 어디서든 배움의 기회를

Everyw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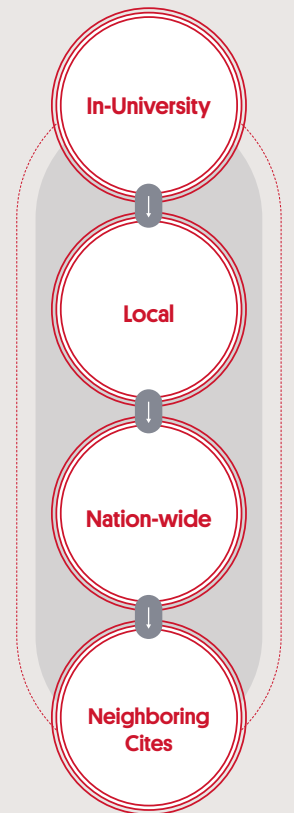
유기적 연결로 열어가는 새로운 기회

Engagement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국과 이웃 도시와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준다는 전략이다. Engagement는 네 가지 집단과의 약속이다. 첫 번째는 'In-University(학내)'로 학내 유기적 관계를 발전시켜 대학 내실을 다져나간다는 의지다. 이는 교직원 이 외국에서 선진사례를 연구해 정책을 제안하는 직원 GELS(Global Experiential Learning Sites)참여 제도와 교원 안식년, 교원 명품강의 개발 지원제도, 평생 명예교수제 도입 등을 통해 구현해 나갈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Local(지역)'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다. 지속가능발전센터(SDGs Center)에 아카데미를 개설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교육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참여와 적극적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는 'Nation-wide(전국)'다. 전국을 배움의 장으로 삼고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현지 대학과 연계해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 'Neighboring Cities(이웃도시)'다. 지리학적이나 역사적으로 가까운 일본, 중국 등과 연구 포럼을 개최해 학문적 역량을 넓히고, 동시에 자·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진출기반도 마련하는 핵심과제다.

새로운 대학 비전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함으로써 아시아 문화콘텐츠 분야 리더를 이루고 동서대학교를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문화콘텐츠 Asia No. 1을 향해

Excellence

특성화 분야인 문화콘텐츠 분야를 아시아 최고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작년부터 '특성화2.0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총 3단계에 걸친 계획이 나왔고, 현재 시행 중이다. 전략의 기초가 되는 1단계(2022~2024년)에서는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XCCT(eXtended Contents, Culture and Technology) Complex를 구축해 문화콘텐츠 창출의 플랫폼을 단단히 하고자 한다. 이어 2단계

(2025~2027년)에서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강화한다. 동서대학교가 가진 뉴미디어기술과 문화콘텐츠 기반을 더해 'DSU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3단계(2028~2030년)는 1~2단계를 거치며 쌓아온 문화콘텐츠를 지역을 넘어 세계에 제공해 글로벌 영향력·평판도에서 'ASIA No. 1'을 달성해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1단계(2022~2024) XCCT Complex 구축	2단계(2025~2027) DSU 브랜드 파워 구축	3단계(2028~2030) 글로벌 영향력 평판도 100 달성

30주년 기념행사 돌아보기

기억을 위한
기록의 시간개교 30주년 기념식¹

대학의 역사, 그리고 미래 가치 공유를 위한 시간

2022년은 특별한 한해였다. 동서공과대학이 문을 연지 3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다. 동서대학교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이어나갈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9월 6일 주례캠퍼스 뉴밀레니엄관 소향아트홀에서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개식선언, 감사인사, 격려사, 내외빈 축사, 시상, 2030 DSU비전 발표, 뮤지컬과 학생들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동서대학교와 국제교류를 맺고 있는 미국 세인트메리스대학(Saint Mary's University) 총장과 중국 중남재경정법대학(Zhongnan University of Economics and Law) 총장, 일본 리츠메이칸대학(Ritsumeikan University) 총장, 방콕대학(Bangkok University) 전 총장, 인도네시아 페트라크리스찬대학(Petra Christian University, Indonesia) 교수 등이 영상으로 동서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하고, 양 대학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하여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또한 기념식에는 임권택 영화감독, 장제원 국회의원,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 윤봉학 부산파이낸셜뉴스 사장, 이오상 KNN 사장 등 지역 경제계와 교육계, 언론계 등 각계 각층의 인사와 교직원, 학생 등 모두 1,100여 명이 자리해 대학이 걸어온 도전의 역사, 다가올 미래를 함께 축하했다.

1

사람에게도 서른은 인생의 전환점 같은 시기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며 더욱 빛나는
미래를 꿈꾸기도 하는 그런 나이.
그래서 서른은 충분히 기념할 만하다.
지나온 대학의 30년을 기념하고
더 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진행된
다양한 행사들을 둘러보자.



2

감사예배²

30년 역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냉정골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의 동서학원을 일구도록 이끌어준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일구어온 사람들을 위한 감사예배가 9월 1일 대학교회에서 진행되었다. 감사예배는 황정환 목사의 기도, 교직원의 특송, 부전교회 박성규 목사가 '주여, 새 날 열어주소서'(여호수아 1:1~4)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설교에서 박성규 목사는 "30년 전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기적이 일어난다"며 "새로운 시대에 도전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통찰하며 나아갈 때 학교와 구성원 모두에게 새 날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장제국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학이념인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키면서 한 길로 걸어왔다"며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30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감사예배는 '한 손에 성경, 또 한 손에는 보습'이라는 건학술로건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공모전 수상작 상영회³

최고의 인재들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

재학생, 졸업생 할 것 없이 동서대학교를 거쳐 간 인재들은 광고,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각종 대회 수상 작품들을 모아 대중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상영회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학과 졸업생 이태동 감독의 칸국제시리즈페스티벌 공식 초청 작품 '종종소(종소 종소 종소기업)'와 세계 3대 광고제를 석권한 디자인대학 광고홍보학과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수상작, 인터넷 플랫폼 모카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는 미디어콘텐츠대학 방송영상학과 수상작, 컴퓨터 그래픽분야 세계 최고 유튜브 채널에서 선정한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수상작 등 엄선된 수상 작품 상영회가 9월 1일부터 3일간 소향씨어터에서 무료로 상영되었다.

공모전 수상작 상영회는 저마다의 분야에서 최고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문들의 꿈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

잉가 잘레니에네 총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⁴

글로벌 대학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아시아는 물론 유럽, 미주 대학들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동서대학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국제화 교육을 실천하며 글로벌 대학으로의 값진 결실을 맺고 있다.

개교 30주년을 맞아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협력을 다시금 공고히 하기 위해 활발히 교류 중인 리투아니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 잉가 잘레니에네(Inga Žalėnienė) 총장에게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잘레니에네 총장이 리투아니아와 유럽연합에 수준 높은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지도자를 꾸준히 육성한 공로와 업적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와 학부 및 대학원의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와의 복수학위과정은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제교류가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다수의 복수학위자를 배출해오고 있으며 교환 교수, 공동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 수여를 계기로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와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나아가 한국과 리투아니아 간의 협력과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트앤디자인전⁵

Media Art Wall을 수놓은 특별한 영상 작품

디자인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예술복합공간인 미디어 아트 갤러리가 디자인홀에 문을 열고, 9월 1일부터 8일까지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 3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미디어 아트 갤러리는 시각화된 예술 작품을 미디어 아트 월(Media Art Wall)에 영상으로 물입감 있게 구현하는 예술 체험 전시장이다.

이 공간에서는 디자인대학 학생들의 '30주년 Media Art Show: 빛에 대한 작은 이야기'와 함께 '30주년 특별전 Ico X Ahn Art Project: The Garden of Idea 전'을 개최했다. 그중 'Ico X Ahn Art Project: The Garden of Ideas 전'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 이코 밀리오레 교수(Ico Migliore, 이탈리아 밀라노 이공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와 디자인대학 학장 안병진 교수의 국제적인 협업 작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작가이고,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교수는 '창의성'에 몰두해 '발상의 정원'이라는 상상과 은유의 공간을 꾸렸다. 밀리오레 교수는 건축가 브라만테와 보르미니를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투시가 적용된 아치 모양의 환경 그래픽을 선사했으며, 안 교수는 '소쇄원의 책가도, 디자인홀에 오다'는 설정을 가지고 소쇄원의 이끼와 풀, 매화, 오리, 그리고 책과 문방의 잡기들을 모티브로 콜라주를 구성했다.

그 외 IC빌딩 3층 Gallery G에서는 디자인 동문전 'DSU Art & Design Show'가, 뉴밀레니엄관 2층 Media Art Wall에서는 '김종기 교수 미디어 아트 초대전: 천자문전'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에 겹쳐 '30주년 Interactive Media Art Wall Show: 덕분입니다 + Impact DSU'가 상영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국제학술대회

'포스트 휴먼시대의 지혜'⁶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 실천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9월 7일과 8일 '포스트 휴먼시대의 지혜(Wisdom in the Post Human Era)'를 주제로 열린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는 디자인대학과 미디어콘텐츠대학의 BK사업단과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가 주관해 포스트 휴먼 시대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첫날인 9월 7일에는 이코 밀리오레와 나비아트센터 노소영 관장의 기조강연과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학과 이현성 교수, 디스트릭트홀딩스의 박상화 부사장,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이재홍 원장, IAAE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전창배 이사장의 주제별 포럼이 진행됐다. 이어 8일에는 미디어콘텐츠대학, 디자인대학,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대학생 및 대학원생 10명의 우수 학술논문 발표와 Engine & VFX 워크숍이 열렸다. 국제학술대회를 마지막으로 동서대학교 30주년 기념행사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들은 마냥 30년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는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덕분입니다, 30주년”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 김정선 총괄부총장

DSU 30th Anniversary의
주역을 만나다 I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행사 준비

‘덕분입니다, 30주년’ 가로등 배너가 캠퍼스를 가득 메운 2022년이 지나고,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새해가 밝았다. 이제 바람에 펄럭이는 가로등 배너와 30주년 글귀는 볼 수 없지만 그 여운은 여전하다. 특히 ‘개교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으로서 행사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김정선 총괄부총장(이하 부총장)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모든 행사의 시작은 2021년 9월 7일 처실장회의의 부터였다. “총장님께서 회의에서 ‘동서대의 회년(禧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홍보실에서 개교 10주년, 20주년 기념행사 자료들을 찾아주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구체적인 행사 진행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다행히 10월 29일 정부에서 일상회복안을 발표했고, 행사 기간을 2학기가 시작되는 2022년 9월 1일로 정할 수 있었다. 30년사의 편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이어졌다.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준비기간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바빴던 시기는 2022년 5월부터 9월 행사 기간까지였습니다. 5월에 홍보실장이 제안한 캐치 프레이즈(Catch phrase)인 ‘덕분입니다, 30주년’과 ‘Impact 동서’라는 슬로건이 확정되면서 디자인대학 안병진 학장이 바로 엠블럼을 디자인했고, 완성된 디자인으로 기념품과 홍보 영상물 제작, 가로등 배너 디자인 작업 등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기념행사

행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손 내밀어준 구성원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제처는 사무국 역할을 흔쾌히 맡

아쳤고,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쇼미더 동서’ 행사를, SDGs센터는 ‘오픈식’을, BK사업단은 ‘국제학술행사’를 30주년 행사 기간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명예의 전당(Donors Wall)을 맡아 줄 부서를 찾지 못했을 때도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나서준 홍보실의 확고한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그렇게 개교 30년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졌다. 그중에서도 김정선 부총장은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특별하게 꼽는다. 대형 LED 스크린을 도입한 프레젠테이션 방식과 사회자 없이 총장이 직접 기념식을 진행하는 다소 파격적인 기획에, 슈퍼 태풍 힌남

노 예보까지 전해져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긴박했던 순간이었지만 총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이사장님의 확신에 찬 기도, 그리고 구성원들의 믿음 덕분에 태풍은 행사 당일 부산을 비켜 갔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동서대학교의 지난 역사를 다시 짚어보고 감사할 수 있었던 소중한 해였다. 김정선 부총장은 새해, 새로운 2030비전과 함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Impact 동서의 미래를 기대해 보아도 좋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역사를 통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30년사 편찬위원장 하강진 교수

DSU 30th Anniversary의
주역을 만나다 II



운 여름도 잊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붓 끝에 처음으로 탄생하는 대학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을 현재와 미래의 즐거움으로 삼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대 총장의 대학 경영 키워드 선정해

‘개념’ 정립에 중점

강의와 집필을 오가는 바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반짝인 순간이 있었다. 초기 대학 역사를 알 수 있는 문건을 동서학원 법인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것이다. “설립자 내외분께서 교육입국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솔하게 고생한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조그만 책자였습니다. 1982년 시작된 민석공과대학의 구체적 설립 계획부터 1991년 11월 15일 동서공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기까지의 소중한 내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수정·보완하면서 교사의 충실도를 높였다. 교사의 방향은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개념 정립’에 두고, 역대 총장의 대학 경영 키워드를 찾아내어 그것을 연역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나갔다. 무엇보다 대학 발전의 기초가 된故장성만 설립자의 건학 정신을 되새겨보고 각 기관의 성과와 학부(대학원) 편제의 변화를 집약하려고 노력했다.

지난 30년 역사는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의 과정이었다. 하강진 편찬위원장은 30년사가 그 과정을 기억하는 작업이었다고 회고한다. “현재 대학들은 학령인구의 절대 감소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교사가 대학들이 격동의 파고를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데 유용한 동력과 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모교 출신 교수들로 꾸려진 편찬위원회

2021년 11월, 동서대학교 30년 교사(校史)를 제작할 편찬위원회가 꾸려지기 시작했다. 지난 30년 역사를 꼼꼼히 찾고 기록할 애교심이 남다른 교수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장제국 총장과 김정선 부총장은 숙의 끝에 1995년부터 동서대학교에서 근무해온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계열 하강진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함께 교사를 편찬할 집필위원들은 동문 교수들로 구성했다. “자를 제외한 정주연, 서한석, 제점숙, 이동훈, 문제영 교수는 동서대학교 출신입니다. 지난 30년 역사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료를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기에 애교심이 없다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편찬 작업은 2022년 새해부터 진행됐다. 지난 30년 역사의 집적이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원대한 시각을 갖고 출발했지만,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10년사, 20년사도 있었지만 화보 위주였고, 초창기 자료는 말할 것도 없이 문헌 상당수가 유실·폐기되어 원고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다. 거기다 개교기념식이 이듬해 9월 초순으로 정해짐에 따라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혹독한 추위도, 꽃 피는 봄도, 무더

“이런 대학 없었습니다.
이젠, 주목받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30주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갓 서른 살을 넘긴 동서대학교에
대학 구성원으로서 하고 싶었던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하나, 동서대학교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이제 부산과 대한민국을 넘어 명실상부한
Asia No. 1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둘,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동서가족의 일체감을 높이는 행사(지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 학생들이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한
저력 있는 젊은 대학의 일원인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권장되고
일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열린 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글로벌 대학 시대에 맞는
외국인 학생 친화적인 학내 인프라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어(영어 등)
가능 교원과 행정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서대학교의 30년!
미래의 동서대학교가 기대됩니다.
문화 콘텐츠 Asia No. 1 달성을
기원합니다!”

구성원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성장하는 대학을 넘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학으로 발돋움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30년을 다시 꿈꿀
시간입니다.”

“대학을
브랜드화 시켜야 합니다!
움직이는,
행동하는 대학,
동서대학교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30년의 성과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30년 근속자가 이야기하는 ‘성장과 축복의 역사’

정보통신센터 이수빈 팀장

개교 30년, 그 세월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학생 수 400명으로 시작된 동서공과대학.

작은 대학으로 시작한 동서대학교는 설립자 내외분의 한결같은 기도와 비전, 사
명감과 헌신으로 기초를 세웠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의 믿음과
신뢰, 동서가족의 학교사랑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 시대를 넘은 앞선 생각을 하였던 설립자의 가르침의 말씀은 대학의 비전과
함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동참했던 나에게는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처럼 오늘이 있기까지 내 청춘의 시간 속에도 시련과
절망,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설립자께서 말씀하신 용기와 희망의 메시
지는 늘 배움과 깨우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수많은 가르
침의 말씀은 지금도 가슴의 울림으로 자리 잡아 인생의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
을 즈음 새로 부임하신 장제국 총장께서 주신 긍정적 에너지와 마인드의 힘은 다
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 선후배의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응원에도 감사
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다져진 마음의 힘으로 100년을 이어나갈 동서대학교를 소망합
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재와 미래의 시대는 서로 도우는 공생과 서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생의 덕목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서대학교를
성장시키고 지켜내는 사명감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
지라”는 설립자의 가르치심을 새겨야 할 때입니다.

빛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대학을 이끌어 오신 총장님과 함께 이제는 모두가 동
서의 미래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써 내려갈 동서대학교를 위해 동서인 모두가 축복 속에 하나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지나고 보면
이렇게 훌쩍 흘러 있겠지요.
미래 30년 결코 길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정신 구현이라는
건학이념으로 시작한
동서대학교가 3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립자님의 헌신과
대학공동체가 교육 사명을
잘 감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 가치를 구현하는
기독교 건학 정신의 명문사학으로
100년, 200년, 천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학이 되도록
함께 정진하기를 고대합니다.”

“지난 역사 동안 동서가족 모두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협력해
지방대 위기시대를 잘 극복했으면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지속가능발전센터장
이명희 교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세계는 하나의 도시처럼 가까워졌다. 최근 코로나19의 범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다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곳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닌, 이제는 지구촌 인류 공동의 과제다.

2015년 유엔(UN)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발표했다.

동서대학교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글로벌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디자인 학부 이명희 교수를 센터장으로 한 학내 전문 통합기관인 ‘지속가능발전센터’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영역을 UN이 제정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심점, 대학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17개의 목표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된다. 이는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목표다.

이명희 센터장은 그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의 창출과 전문가 양성으로 오랫동안 사회의 혁신과 경제발전, 복지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해온 ‘대학’이 SDGs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서로 연결된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모두를 다룬다면 대학의 기능과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명희 센터장은 이를 ‘대학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런 점에서 동서대학교는 늘 한 발짝 앞서왔다. “우리는 2020년 ‘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Network’인 DESIS-Lab과 2021년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공식 회원으로서 대학과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SDGs 교과목 운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술이나 디자인, 제도 연구 등 SDGs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준공한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지속가능한 캠퍼스로의 전환을 대외에 알린 계기였습니다. 교내에 스마트 에너지 장치를 구축하는 이 사업은 10년간 2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DGs 달성을 위한 총괄기관

SDGs 실천을 위해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영역에서 모든 구성원이 협업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내 산재되어 있는 각 조직별 사회적 가치와 책임 관련 활동 및 연구를 한곳에서 집중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센터’의 설립은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디

자인대학이나 민석교양대학, 창업지원단 등 각 단과대학과 부서별로 추진 중인 SDGs 교육의 중앙관리나 LINC 3.0사업의 지속가능관련 활동, 대학의 지역상생 프로그램과 해외봉사 프로그램 등의 다각화 필요성에 대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들고 운영 기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 줄 수 있는 중심기관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발전센터는 대학 내 전공분야 간 융합연구와 글로벌(Glocal)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 양성, 지역사회의 상생 솔루션 도출, 지역 산학협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대학 내외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DGs 캠페인과 SDGs 국제디자인공모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DSU-SDGs 애뉴얼 리포트 발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명희 센터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멈춰선 안 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가치 있는 내일을 위한 핵심은 모든 구성원이 협업 및 상호연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입니다. 이를 실현한 결과로 지속가능보고서인 애뉴얼 리포트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발전 실현과 SDGs에 기반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대학 랭킹인 ‘THE Impact Ranking’에 진입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오늘날, 인류가 모두 함께 웃을 수 있는 내일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센터가 구현해 내는 ‘같이의 가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 창의력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소 I

소름 돋는 반전 영상 제작해 유튜브 100만 뷰 달성

광고홍보학과 3학년
유지호, 성민재, 서채빈, 정현우 학생

2022년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소름주의] 내 딸인 줄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된다. 영상의 시작은 평범한 드라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엄마와 식탁에 앉아 깨진 휴대폰 액정 수리비를 요구하는 딸의 대화가 그려진다. 그러던 중 집으로 누군가가 들어오고, 아빠인 줄 알았던 엄마의 눈에는 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들어오면서 영상은 갑자기 공포·스릴러 장르로 변경된다. 다시 돌아본 식탁 위엔 딸이 아닌, 통화 중인 휴대폰화와 “돈 보내달라니까?”라고 채근하는 알 수 없는 인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며 영상은 끝이 난다. 이 영상의 정체는 영화가 아닌,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 화제의 영상을 만든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을 만나, 이번 광고 영상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소름주의] 내 딸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 속 그 사람, 확신할 수 있나요?
부산사하경찰서 x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연극배우 심미란, 전여정 출연



(왼쪽부터) 서채빈, 유지호, 정현우, 성민재

Q.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했나요?

민재_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조회 수 1만 에도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나요. 5만 일 때도 말도 안 된다며 기쁨의 하이파이브를 쳤었죠. 근데 10만을 넘겼을 땐 어떤 면에선 무섭더라고요. 관심이 큰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채빈_ 광고가 공개되고 팀원들과 매일 댓글 반응과 조회 수를 확인하면서 행복했어요. 날마다 깜짝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죠. 한 사람이라도 광고를 시청해주는 것도 감사했고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영광스러운 마음이에요.

Q. 영상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지호_ 클라이언트의 요구 사항 중 하나가 사

람들이 주목할 수 있고 뻔하지 않은 ‘파격적’인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반전을 이용해지는 거였죠. 반전을 주기에 제일 적합한 장르가 ‘공포’였어요. 공포는 대중들에게 충격과 경각심을 주고, 관심을 모으기에 좋은 장르기도 하잖아요.

Q. 제작 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우_ 경찰서 내부 사정 때문에 제작 기간이 9일 정도밖에 안됐어요. 빠듯했죠.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 단독방을 만들어서 진행했어요. 가장 먼저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해 교수님께 피드백 받아 정리한 8가지의 아이디어 기획안을 보여드렸고, 거기서 선택된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서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제작했어요. 그리고 영상의 질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전문 배우와

촬영 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찍었어요.

과제와 공모전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한 상황이었어서, 일주일 동안 팀원 모두가 매일 밤을 새워 작업했기에 더 기억에 남고, 애정이 가는 작품이었어요.

Q.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현우_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도 고민이었지만,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합하는 ‘선’을 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사하경찰서 담당자님이 원하던 것은 ‘파격’. 그런데 대학생인 저희 기준의 파격과 공무원 기준의 파격 정도가 다르다보니 이 부분을 조절하는 데 팀원들 모두 고민이 많았죠.

민재_ 대학생 신분이기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업의 과제도 많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 각자의

개인 시간을 쪼개 가며 회의를 했습니다. 늦은 새벽에도, 주말에도 모여 회의하다 보니 하루에 4시간도 못 잤던 상황도 많았습니다.

다들 점점 다크서클이 들어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단합해 피로를 이겨냈던 점이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뿌듯했던 점이었습니다.

Q. 영상 제작 시 가장 고심하고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민재_ 정말 짧은 영상이지만 큰 여운과 충격을 주고 싶었기에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촬영 때도 몰입과 반전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몰입하게 한 뒤에 큰 반전을 주려고 고조되는 분위기에서는 카메라가 조금 떨리는 등의

사소한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Q.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채빈_ 딱 한 가지로 정리하면서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전체 커리큘럼 중에 실제 광고회사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실습이 많아요. 확실히 다른 대학 광고홍보학과들 보다 수업의 질도 높고, 대외활동을 하다보면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의 위상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업무보고부터 클라이언트와의 의견조율 등 회사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은 정말 여기 밖에 없을 거예요.

지호_ 대학생이지만 기업과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고, 광고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

요. 회의공간부터 촬영장비, 편집실, 스튜디오까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서 실무경험을 쌓기에는 최적이라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현우_ 아직은 TV에 나오는 광고를 내 손으로 찍어보고 싶다 정도고, 길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재_ 짧은 영상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광고의 매력인 것 같아요. 찾아보는 광고를 만들 수 있는 광고인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지호_ 광고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는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채빈_ 광고와 마케팅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기업이,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찾는 광고인이 되고 싶어요.

● 창의력 넘치는 크리에이터들의 양성소 II

쌓여가는 경험치 만큼 가까워지는 언론인의 꿈

방송영상학과
3학년 박혜원,
4학년 한영인 학생

**Q.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올해 관련 공모전에 참가해
큰 성과를 얻었다고요.**

혜원 올해는 영인이가 두 개의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했어요. 하나는 부산환경공단과 부산일보가 주최한 '시민불편 전국영상공모전'에 참여해 장려상을 받았고, 또 하나는 방송기자연합회 주최의 '제5회 팩트체킹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일이에요. 특히 팩트체킹 공모전 같은 경우는 '상을 꼭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단, 만들면서 진짜 취재기자라고 생각하고 배워나가자는 생각이 컸어요. 그랬더니 결과도 좋았던 것 같아요.

**Q. 기자로서의 역할을 배울 수 있었던
팩트체킹 공모전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겠네요. 공모전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영인 저희가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진실과

사실의 차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웹진'을 만들어 본 제 경험을 녹여 내 이것을 웹진 형식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 웹진 형식에 한 가지 내용을 담는 것이 아닌, 팩트체크 자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생이 생각하는 팩트체크, KBS 취재기자님과 김용성 교수님 인터뷰, 칼럼, 일상생활에서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넣어 작품을 만들었어요. 거의 두 달 동안 공들여 만든 작품이었어요.

**Q. 오랜 기간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이네요.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했나요?**

혜원 아무래도 이게 웹진 형식이다 보니 편집 디자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고 '어떻게 하면 콘텐츠로 활용 가능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잘 쓰고, 검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미디어 전공자로서 콘텐츠로 활용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인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해 가장 고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만큼 거짓 정보도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그 중요성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 일상생활 속 팩트체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Q. 공들여 만든 작품인 만큼 보람되고,
느낀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혜원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KBS 부산방송국 대학생 인턴 실습기간 중 친분이 생긴 취재기자님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일이었어요. '과연 해주실까?'라며 반신반의로 한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자님의 인터뷰가 큰 힘이 되어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인 어도비 툴 중에 편집 프로그램도 새로 배워야 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지만, 알차게 인터뷰 질문도 짜고 목차도 편집하는 부분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둘 다 언론인을 꿈꾸고 있다 보니 '예비 언론인의 자세를 미리 배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Q. 방송영상학과에서 배웠던 것들이
공모전에도 많이 반영되었나요?**

영인 촬영, 영상편집실습, IFS, 뉴스캐스팅실습 등 방송영상학과에서 들었던 수많은 실무 수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실제로 조를 짜서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몇 번이고 하다보면 작품을 만드는 '감(感)'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특히 IFS수업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과 연계해서 실제 회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획, 촬영, 편집 등 영상 전반을 한번에 배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어요.

**Q.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궁금해요.**

혜원 취재기자가 되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딱 한 가지만 꼽기보단 크고 작은 사건사고부터 정보성 내용 등 가리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영인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언론인의 길을 걷고 싶어요. 방송국이나 신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사회부, 국제부, 경제부가 리지 않고 활동하고 생각하며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거창한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의 기록자'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겠지만 그래도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요.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 언론인이 되고 싶은 방송영상학과 박혜원, 한영인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는 동서대학교만큼 좋은 학교는 없을 것이다. 실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 공간, 실제 현장과 가까운 수업 내용,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지는 공모전 참여의 기회까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은 '언론인'이라는 꿈에 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다.



(왼쪽부터) 박혜원, 한영인

세상을 향한 탐험!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넓은 세상을 누비며 얻은 경험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소중한 자산이다.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동서인들의 눈빛에서
어딘가 모를 당당함이 느껴지는 이유다.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남보다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얻은 자산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선배들의
멋진 경험담을 들어보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시간

+

방송영상학과 18학번
이예빈

저는 경험을 통한 배움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삶에서 무엇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해도, 그 무의미함은 배움의 행복으로 충분히 유의미해지니까요. 지난 미국에서의 시간들은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SAP에 합격 후,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였습니다. 간 김에 영어도 원어민만큼 잘하고 싶고, 하이틴 영화에서 보던 삶도 살아보고 싶고, 유학생의 멋진 라이프를 뽐내고도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업량, 군중 속 외로움 등 예상치 못한 시련에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생각했습니다. 그맘때 함께 교환학생을 온 외국인 친구가 제게 꿈을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고 싶다고 답했는데, 그때 “한국에서만?”이라던 친구의 답변은 아직도 신선한 충격으로 남아있습니다. 미국

에서 학생들은 당연하게 세계를 꿈꾸는데 나만 왜 그동안 해외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꿈의 무대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험한 이후, 저는 이곳의 경험을 그저 ‘추억’이 아닌 ‘가능성’으로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목적이 확실해지니 평범한 일상도 영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가 반짝이는 뉴욕, 광활한 그랜드 캐니언,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할리우드의 땅 로스앤젤레스 등. 지난 24년간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장소들을 방문하게 될 거라곤 6개월 전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이 백일몽 같은 기간을 추억하며 슬퍼하기보단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원동력으로 승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난 SAP 기간을 떠올리며 예전보다 조금 더 간절한 동기로 살아갈 겁니다. 삶을 바꿨던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SAP-USA

미국에서 즐기는 갓생*

SAP(Study Abroad Program)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SAP는 한 학기(약 4개월)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프국제대학교(Hope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진행된다. 영어집중학습과 현지 프로젝트 수행, 어학수업 등을 통해 영어학과 학점으로 최대 15학점까지 취득 가능하다. 현지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지원과 항공료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까지 덜 수 있다.

갓생

신을 의미하는 ‘God’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합성어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신조어

출처: 네이버 오픈사전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더 커진 계기

+

방송영상학과 18학번
황예연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학, 파티, 스포츠, 여행 등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모든 생활의 기본인 영어 수업은 문법, 읽기, 쓰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됩니다. 여기에 American Culture라는 수업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문화까지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2학기에 미국에 오게 된다면 할로윈데이 기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학교 내에서 파티를 진행하는데, 실제로 호박을 파보기도 하고 미드나 영화에서 본 것처럼 주변 가정집에 사탕을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거기다 교내에서 실시하는 네온 파티, 풀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피어 멘토 등을 통해 미국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도 많아 어느 순간 자유롭게 프리토킹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어서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하며 미국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좋습니다.

많은 학생이 4개월로 진짜 영어 실력이 늘까, 낯선 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진 않을까 등 여러 가지 걱정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와 보니 그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합니다. SAP를 통한 경험은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더 커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준 모교에 감사함을 느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SAP+ Japan

언어와 문화는 물론 현지 창업
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까지

코로나19로 멈췄던 일본 SAP가
2022학년 2학기 다시 재개되며
SAP+로 업그레이드 됐다.

4개월간 SAP+는 기존에 하던 일본
SAP 프로그램은 물론, 글로벌창업특
구로서의 후쿠오카 지역 이해를 위한
현지 창업 프로젝트 참여 프로그램까
지 생겨, 현지 감각을 익히는 등 훨씬
폭넓게 일본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

+

International Studies과 21학번
이소림



학교를 다니며 일본에 관심이 많아진 저는 잠시
정해둔 계획에서 벗어나 일본 SAP+를 통해 새
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따로 일본어
공부를 한 적이 없었기에 많은 걱정을 안고 간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준별 수업과 상세하
게 짜여진 커리큘럼, 매일 치르는 시험 덕분에
일본어 실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거기
다 새로 생긴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에서
창업하는 방법과 경제상황을 공부하고 발표까
지 해보는, 정말 인생에 다시 또 있을까 싶은 경
험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일본어 실력이 많이 늘었던
이유는 일본 학생들과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한
일교류회'와 일본고등학교 체험, 기모노 체험 등
매달 있는 문화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수업
외에는 2021년 동서대학교로 유학을 왔던 일

본경제대학교 친구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
도 일본어와 문화를 배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
습니다.

학교 시설은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고 좋았습니
다. 학식은 저렴한 가격에 일본 정식 등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었고, 기숙사는 욕실이 달린 1
인실이라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여행으로도 한 번 가보지 못했던 일본에서의 4
개월은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JLPT
N2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현재 일본 세대들
의 성격과 가치관, 취업, 경제상황 등에 대해서
도 알게 되면서 일본 취업도 긍정적으로 생각하
게 되었습니다.

개인 유학만으로는 절대 경험해보지 못할 문화
체험과 한일 교류는 오로지 제가 동서대학교 학
생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넓힐 수 있었던 신선한 경험

+

인공지능응용학과 20학번
김정현



지난 4개월간 후쿠오카에서의 경험은 정말 놀라
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을 통
해 이전과 다른 더욱 발전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서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만난 학생들 등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
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감을 갖고 도착한 일본이었지만
현지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어 적응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하나라도 더 배우고 돌아가
야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냈
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학교에서 기회를 마련해준
한일교류회와 현지 창업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일교류회와 현지 창업 프로젝트는 더 많은 일본
인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다양한 생각

을 엿볼 수 있어 친목뿐만 아니라 취업 역량이나
학업적 능력 향상에서도 의미가 컸던 프로그램
들이었습니다.

일본 생활은 처음 OT시간에서 들었던 "각자 어
떤 일본 생활을 했는가에 따라 모두가 다른 경험
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한 마디
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만큼 보
이고, 내가 만난 사람만큼이 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삶의 방향성을 정하
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김정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
니다.

덴마크 올보그대학, 남덴마크대학 연계 학부생 해외교육 프로그램

미래 로보틱스 분야 연구자로서의 답을 찾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은 2022년도 덴마크 올보그대학(Aalborg University, AAU), 남덴마크대학(Southern of Denmark University, SDU)과 연계해 해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에 선발된 3명의 학생들은 6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8일간의 교육을 이

수했다.

AAU의 ROBOTICS AND AUTOMATION 그룹과 SDU의 Robotics 그룹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로봇 연구환경 견학 및 연구체험', 'ALSW 기반 로봇 기초 및 활용 수업', '덴마크 문화 소개' 등 학문과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연구의 방향성 구체화에 큰 도움

+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고성연

덴마크 AAU와 SDU 연구소에 방문해 다양한 로봇 연구 환경을 보고, 그곳의 교수님과 연구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덴마크에서 공부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꿈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와 로봇 사이의 사용성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도출하는 연구에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용자와 로봇의 원활한 협업과 안전을 위한 로봇의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양한 로봇을 가까이 보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저는 행운아입니다.

나의 길에 대한 확신을 준 워크숍

+ 소프트웨어학과 18학번 김기훈

로봇분야가 연구소나 회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덴마크 대학과 연구소 방문으로 그런 의문들이 시원하게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로봇팔, 시각인식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만 바라봤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연구들을 중점으로 하면서 그 연구들을 여러 분야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들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Kuka로보틱스에서 연구 개발한 로봇팔이 직접 적용되고 있는 사례까지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깨기 위한 과정

+ 소프트웨어학과 19학번 이소연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덴마크 대학교들과 기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응해 자신의 한계점을 돌파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고학년이 될수록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제 모습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Robotics 분야에서 어떤 방식과 방향에 소프트웨어가 녹아들 수 있을지,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으로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앞으로의 꿈과 목적,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주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다국적 대학생들 간 교류활동을 지원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의 한국문화, 역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동서대학교는 2019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동서대학교는 지역 현안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Asia Global Hub Busan: 함께 하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주제로 사업을 진행했다. 팀당 6명으로 구성된 총 10개팀이 약 한 달 동안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해외 자료 제작 등을 위해 소규모 탐방 및 토론회 활동을 진행했다.

언어와 문화를 넘어, 마음으로 하나 된 우리

+ 캠퍼스아시아학과 20학번 박준성



일본, 중국 친구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캠퍼스아시아학과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은 무조건 탐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일본, 중국 친구들과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도 교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으로 '버스킹팀'을 꾸려 사업의 주제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홍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6명이 머리를 맞대어 나온 아이디어는 'QR 코드를 이용한 게임 만들기'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친구들과 해운대, 감천문화마을, 태종대, 부산타워 등 다양한 관광지를 여행했고,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영상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영어가 잘 들리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같이 촬영하고 밥을 먹으면서 많이 친해지니 신기하게 영어가 입에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즐거움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덕분인지 프로젝트 발표에서 1등을 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번 사업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도 배울 수 있었던 아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점은 '진심은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면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우수 수기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박성준 학생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
참 다행이야



Welcome Back to DSU!

모니터를 사이에 두고 만날 수밖에
없던 지난날은 이제 안녕.
기분 좋은 가을바람과 함께
만남의 시간이 돌아왔다.
국적,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즐기며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들을 되돌아본다.



- ① Welcoming Ceremony
- ② International Day
- ③ International Culture Day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과 동서대학교를 제대로 느끼게 해준 2022년 2학기

2학기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기존 외국인 유학생들이나, 새롭게 입학한 신입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뜻깊은 학기로 남았다. 학생들에게 온라인을 벗어나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함께 만나 문화를 나누고, 게임도 즐기며 진정한 대학생 생활을 만끽할 기회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9월 14일 신입 외국인 유학생 환영식인 'Welcoming Ceremony'를 시작으로, 9월 18일 'International Day', 11월 9일 'International Culture Day - Part 1'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International Day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캠퍼스 버스킹과 플리마켓, 테이블 축구대회, 보물찾기 등 다양한 행사로 성황을 이루었다. 이어 외국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International Culture Day는 야외 운동장에서 림보게임과 줄다리기, 릴레이 경주 등 한국의 체육대회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오랜만의 대면 활동으로 학생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그간 쌓였던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 한국의 정(情)을 나누었다.

정순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동서대학교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부문 대상’, ‘제17회 로마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수상. 이제 막 첫 장편영화를 세상에 내놓은 신인 감독, 정지혜의 수상 경력이다. 누군가 보면 신데렐라처럼 영화계에 입성했다고 볼지 모르지만, 정지혜 감독은 투자, 배급사가 수도권 보다 현저히 적은 부산에서 단편영화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꿈을 향해 갔고, 지금의 결과를 이뤄냈다. 오늘날 정지혜 감독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를 키워내고, 지원해준 동서대학교가 있었다.

영화 ‘정순’ 정지혜 감독

영화학과 14학번



영화 '정순'

Q. 영화인의 꿈은 언제부터 꾸셨나요?

어릴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영화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영화 제작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고등학교에 들어가 영상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과 단편영화 형식의 영상을 찍었던 그 경험들이 너무나도 재밌었고, 영화를 위한 글을 쓰는 작업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유희의 목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영화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Q. 정순으로 데뷔하기 전, 다양한 단편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정순 외에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관객 분들을 만나게 해준 '면도'가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면도'가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면서 함께 노력해 만든 작업의 결과물을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영화에 대해 관객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한 더 큰 흥미와 책무를 가지게 되었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관객 분들이 영화를 보는 데에 귀한 시간을 투자해주신다는 생각으로, 한 장면 한 장면 쉽게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임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Q. 정순 속 가장 애착 가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모든 장면 하나하나 다 애착이 가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정순'의 오프닝 장면을 고르고 싶습니다. 정순이 딸 유진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 출근하는 원테이크 장면입니다. 그날 마지막 촬영이었고, 시나리오에는 대사 없이 짧은 지문으로만 되어있던 장면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뒤, 스태프들 없이 두 배우만 차에 탄 채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배우들이 애드리브로 장면을 채워주셨습니다.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에는 막연하게 그려진 장면이 두 배우를 통해 더 현실적이고 영화적으로 구현된 순간이라, 개인적으로 그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Q. 부산에서 영화를 제작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내년 영화 개봉까지 앞두고 있다고요.

제한된 예산과 시간 안에 영화 제작을 마쳐야 하니 연출자로서 포기하고 타협해야하는 지점들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수도권과 비교해 부산에는 투자, 배급사가 현저히 적어서 프로덕션이 국가사업 지원비에 많이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정순'은 막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에 촬영에 들어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고, 부족한 예산으로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학 동문들이 스태프로 많이 참여해 그런 점들을 이해해주셨고, 동서대학교 장비실에서도 영화 제작 장비를 적극 지원해주셔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화는 되도록 올해 초에 극장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배급사와 논의 중입니다. 관객 한 분이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Q. 영화학과에서 가장 많이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영화학과 학생일 때부터 졸업해 영화를 만들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가까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 덕분에 다양한 영화 제작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자 현장의 선배로서, 헌신적으로 학생들의 작업물을 들여다봐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교수님들 덕분에 인문학적인 영화 지식을 넘어 직업인으로서 영화인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나요?

생소하지만 가까운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물과 사건인데 들여다보지 못한 이야기이거나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차기작은 정순과 다르게 관객 분들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코미디 영화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2

SUCCESS STORY

많이 경험할수록 선명해지는 미래

안동균

MBN 영상취재부 촬영기자
방송영상학과 08학번

막연히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만 가지고 방송영상학과에 입학하는 후배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어서야 방송국에 입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졸업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2학기까지 학점을 꽉 채워 수강해 겨우 졸업했습니다. 이후에 촬영기자로 꿈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이라면 무조건 다 했습니다. 촬영 보조부터 시작해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정규직을 향한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촬영기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느끼는 것보다 촬영기자가 되기 위한 취업문이 더 좁고 힘들다는 것을 느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혹시 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우선 현장에서 보고 배우며 스펙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자신이 원하던 최종적인 꿈에 가기 위해선 모든 경험에 진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분야 입사를 위해 어떤 질문을 받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입으로 지원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촬영기자의 덕목'은 무엇이며, '내가 촬영기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어떤 기술들을 익혔는지' 위주의 내용과 학교 연구회 활동이나 공모전 참가 내용, 그리고 인턴경험 등을 통해 내가 이 직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냈습니다. 이후 CJ 헬로비전 정규직 전환 면접 때에는 현장 실무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뷰 샷의 트렌드가 타이트 바스트에서 루즈 바스트로 넘어간 이유', '현장에서 와이어리스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처방법'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경력직으로 MBN에 이직할 때는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내가 왜 MBN 촬영기자 자리에 적합한지', '실제 경험한 취재 사례를 통해 얻은 기술이나 느낀 점들'을 어필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크고 작은 노력과 경험은 모이고 쌓여,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는 기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음 즐기며 당장 취업을 고민한다고 바뀌는 건 없습니다. 꿈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3

SUCCESS STORY

CAMPUS ASIA 1기의 자부심

정다연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PR Officer
캠퍼스아시아학과 12학번



동서대학교는 한·일·중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국간 교육협력사업'인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서대학교와 중국의 광둥외국어무대학교, 일본의 리쓰메이칸대학교가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학생들이 세 개 대학을 순회하며 각 나라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수혜자로, 3국 학생들과의 밀접한 생활과 교류로 다문화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재학 중에는 다양한 대외활동에 참가하며 세계관을 넓혀나갔습니다. 유네스코 한중일 GCED 청년포럼에 참가해 협력을 위한 액션플랜을 기획해보거나,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에서 청년대사로 활동하며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국 학생들과 함께 셰어하우스에서 생활하고, 동아시아 부전(不戰) 조약을 구상하는 등의 수업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는 미국 국무부와 한국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비영리기구인 중국문화원(Chinese Culture Center)에서 마케팅 인턴을 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중국문화원은 지리적으로 IT기업이 많은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로부터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 분야에 대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생긴 저는 귀국 후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고, 과학기술부 주관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 선발·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6개월 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었고, 인문학 기반으로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판교에 위치한 인공지능 챗봇 및 검색 기업의 Marketing & Communication 부서에서 4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며, 마케팅·홍보PR 직무적 역량과 전문성을 기르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CAMPUS ASIA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글로벌 역량을 높여나갔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3국 협력을 이뤄가는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일조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CAMPUS ASIA를 통해 배운 경험과 마케팅·홍보PR 경력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채용에 정식 합격해 3국 협력을 위해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CAMPUS ASIA였습니다.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준 모교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3국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전 도전은
이들처럼

“
광고제 수상
명단에
동서대학교가
없으면
섭섭하지!
”

- 싱가포르-레드닷 어워드
2년 연속 Best of the Best
- 독일-레드닷 어워드 11개 Winner
- 뉴욕페스티벌 어워드 금·은·동상
- 부산국제광고제 11개 작품 금·동상



1

미래 유망주들이 써내려간 위대한 기록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분석,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융합교육은 매년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국제적인 광고제에서 수상할 수 있는 비결이다. 올해도 뉴욕 페스티벌 국제광고제와 레드닷(Reddot) 어워드 등에서 큰 상을 수상하며 세계 광고계의 주목을 받았다.

‘뉴욕 페스티벌 국제광고제’는 칸 국제광고제, 클리오 광고제와 함께 손꼽히는 세계 3대 광고제로, 1957년부터 65년간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권위 있는 대회다. 매년 60여 개국 이상에서 세계 유수의 광고 회사들이 2만여 작품을 출품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쟁쟁한 글로벌 광고 회사 사이에서 우리 학생들은 ‘Smelly Belt¹’로 금상을, ‘Goodnight Mommy’로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고, 무려 11개 작품이 15개 부분에서 쇼트리스트를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그중 안치현, 박원배, 이지은, 강동호, 최민성 학생²의 ‘Goodnight Mommy’는 2022년 ‘싱가폴 레드닷 어워드’에서도 ‘Best of Best’를 수상해 또 한 번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Goodnight Mommy는 육아를 하는 청각장애인 부모들의 수면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동 베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광고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감지해 자고 있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다.

이어서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어워드에서는 무려 11개의 Winner를 수상하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다. 수상작품 중 ‘Touchable Hair’는 상위 0.1프로에게만 수여하는 Best of Best에도 선정되었다. 2022년 공모전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약 8,000여 작품이 출품되었고, 세계 최고의 크리에이터 24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유일의 국제광고제인 ‘부산국제광고제’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금상과 동상, 9개의 Winner를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금상은 이영준, 조동하, 박준혁, 하은별, 이서영 학생의 ‘Smart Label Package’에게 돌아갔으며, 은상은 김유진, 강동호, 임혜정, 김대엽 학생의 ‘Fake Boss’가 수상했다. 금상과 동상 수상 학생들은 제일기획, 덴츠, TBWA, 대홍기획 등 13개 광고대행사와 매칭해 인턴십 자격이 주어지고, 국내 굴지의 글로벌 광고대행사 인턴십에 참여하는 특전을 누리게 된다. 2022년 부산국제광고제는 ‘세상을 바꿀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찾아라’를 주제로 73개국에서 1만 8,922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제 도전만 했다면 레전드를 찍는 동서대학교 학생들. 오르고 올라, 공모전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들의 수상 소식이 2022년 하반기에도 어김없이 들려왔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그 기분 좋은 소식들을 지금 풀어본다.

“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의 중심에서
‘동서대학교’를 외치다!
”

-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BIC Festival)
5개 작품 선정
- Google Play Top 3 수상



3

‘인디게임 축제’는 신인 게임 개발자들이 자신의 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기회와 장이다. 특히 스스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도전할 수 있기에 열정 넘치는 대학생들에게 인디게임 축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대한민국 대표 게임축제이자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인 ‘부산인디커넥트’는 세계 15개국이 참가하고 에픽게임즈, 유니티, NC소프트 같은 굴지의 회사들이 스폰서로 참여하는 대규모 게임 공모전이며, 게임 개발자나 게임 전공자라면 자신이 만든 게임이 선정된다는 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2022년 9월에 열린 BIC에서 5개의 게임학과 졸업 작품이 선정됐다. 이는 대한민국 어느 교육기관에서도 이루지 못한 놀라운 성과다. 선정작은 Dream PORKY팀의 액션 어드벤처 퍼즐게임 ‘신나 문방구¹’와 이습우

화 ‘아기 돼지 삼형제’를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 율프팀의 ‘이습 외전 : 늑대 이야기’뿐 아니라, 청설모를 사랑하는 모임팀의 ‘종이 마을 건설대작전 : 수상한 주민들’, 옴니버팀의 ‘도넛공방’, Piuda팀의 ‘Primrose²’다. 흥미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조작방식으로 두각을 보인 5개의 작품은 9월 1일부터 4일간 오프라인 전시 행사를 가졌으며,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상시 전시를 통해 전 세계에 소개됐다.

게임학과 졸업생의 작품도 게임 축제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16학번 정재홍 동문이 참여해 개발한 게임인 ‘The Greater³’가 Google Play가 주최한 인디게임 페스티벌 Top 3에 선정된 것이다. 이번 수상은 정재홍 동문이 아이엠 게임에 입사 후 처음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로 거둔 성과인 만큼 회사와 게임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



1



2

영혼을 담은 영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다

영상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보다 생생하고,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매개체다. 문화콘텐츠 ASIA No. 1을 지향하는 동서대학교는 이러한 영상에 특화된 우수 인재들을 꾸준히 양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여러 영상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하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용콘텐츠창작학과 구수정, 최인환 학생은 부산시가 2026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피란수도 부산'을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영상 콘테스트에 참가했다. 현재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을 알리기 위해 영상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아카데미를 열고 '피란수도 부산 문화재야행' 등의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두 학생은 피란수도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적은 우암동 소막마을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전개했다.¹ 당시 시대 모습을 '순덕이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투영해 부산의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했던 삶의 의지와 희망을 가지 있게 담아내어 '특별상'을 수상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축제 중 하나인 '부산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도 교육의 가치가 빛났다. 11월 11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개최한 2022 부산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이 대상(1팀)과 장려상(5팀), 특선(4팀)까지 주요 상을 모두 휩쓸었기 때문이다. 대상은 김혜미, 김현화, 홍현정, 김지웅 학생이 공동연출 및 제작한 'Open the door'가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김은영, 이진

원, 김유진, 아리, 한근일, 조현우 학생이 제작한 'Schooldays'와 정민지 학생이 제작한 '아름다운 미'가 수상했다. 캐릭터 부문 장려상으로는 정윤정 학생의 '보리별', 정민지 학생의 '부족한 녀석들', 이근민 학생이 제작한 '우리동네 슈퍼할배, 두팔'이 선정됐다. 최정현 학생의 '짜시기들', 고나경 학생의 '악몽퇴치', 백민경 학생의 '마법의 베이커리', 이도경 학생의 '바닷마을의 윤술'은 캐릭터 부문 특선을 수상했다.

11월 25일에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14개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해 개최한 '제6회 BIFEC 공모전'에서 학생 3팀이 각각 최우수상(1팀)과 장려상(2팀)을 수상하는 경사를 맞았다. 올해로 6회째 개최되는 교육콘텐츠 UCC공모전인 BIFEC는 동서대학교를 비롯해 경상국립대·고

신대·동아대·부경대·부산가톨릭대·부산대·부산외국어대·신라대·영산대·울산대·인제대·창신대·한국해양대 등 14개 대학, 39팀, 114명이 참가해 '나만의 학습 노하우, 비대면 학습일지, 창의적인 학습 스토리 등' 학습에 대한 자유 주제로 완성한 UCC를 선보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일본어학과 손예진 학생은 21세기 지구 대학 정복기라는 주제로 지구별에 온 토끼의 A+ 성적구술을 받기 위한 성적향상 비법을 영상에 개성 있게 담아냈다. 장려상은 치위생학과 이진민, 박나경 학생의 '나1등EASY팀'과 경찰행정학과 김하늘 학생의 '공부모하지?팀'이 수상했다. BIFEC에 참여한 모든 UCC콘텐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피란수도 부산을 응원해 영상 콘테스트 특별상
- 부산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휩쓴
애니메이션학과
- BIFEC 부울경 학습콘텐츠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1

“학생들의 열정으로 부산 관광산업 르네상스를 꽃 피우다”

”



1

관광과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 부산.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과 도시노후화는 부산의 관광산업을 침체기로 이끌고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청춘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다. 8월 31일 부산관광공사가 주최한 '2022 부산 대학생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연합팀으로 구성된 'Walking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alking팀'은 동서대학교 경영학과 이준원 학생, 관광컨벤션학과 옥창화·이유진 학생, 경성대학교 졸업생 이유진 학생이 의견을 모아 '꽃길 스튜디오 : 골목상권을 꽃피우다'라는 관광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골목길 투어와 한복 스냅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내세웠으며, 스냅사진 시장의 주 고객인 2030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선한 소재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의미를 둔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의 노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는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정부사업에서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2022 관광두레 대학생 서포터즈 성과 공유회'에서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이준서·옥창화·최유미 학생으로 구성된 새롬누리팀²이 상위 2개 팀에 수여하는 최우수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이다. 그간 부산 내에서 수상한 사례는 많았지만,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정부사업에서 최우수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하다. 새롬누리팀은 지난 7월 전국의 대학교 중 5개 팀에게만 제공되는 관광두레 서포터즈에 선발되어 8월

- 부산 대학생 관광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관광경영컨벤션학과 연합팀 최우수상
- 관광두레 대학생 서포터즈 성과공유회
최우수팀

부터 11월까지 부산시 영도구 봉산마을의 관광 자원을 젊은 MZ세대에 맞게 재해석해 SNS 홍보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봉산마을은 한국전쟁 시기 피난민들이 집단 거주하던 지역으로,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 조선소 인근 골목과 토박이 주민들의 삶의 모습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젊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마을에 정착해 특화골목을 형성하며 부산 고유의 콘텐츠를 보유한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새롬누리팀은 젊은 층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4개월간 유튜브 영상 8건, 인스타 333건, 블로그 6건을 제작했으며, 외부 유명 파워블로거와 협업을 통해 조회 수를 더욱 확대하는 시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



- 한국기독교영화예술제
이가영 감독 대상
-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축제
연기와 시우터 대상

최근 들어 연기와 영화, 뮤지컬 분야에서 재학생, 졸업생 할 것 없이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인재들의 성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는 2008년 설립 이래 꾸준한 투자와 전문적이고 열정적인 교육이 뒷받침된 결과다. 10월 14일 서울 세빛섬 FIC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에서 개최한 '제7회 한국기독교영화예술제'에서는 영화과 졸업생의 이름이 불렸다. 영화과를 졸업한 이가영 감독¹이 '오, 주님'으로 대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수상작 '오, 주님'은 참 소망인 복음 없이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영화제에는 출품작 5편이 경쟁 부문에 올랐다. 올해는 작년 대비 여섯 배 이상의 지원자



“
임권택
영화예술대학,
영화와 연기 등
예술분야 인재의
성장을 이끌다
”

가 공모하며 역대 가장 많은 출품작 수를 기록했다. 영화제 심사위원 라인업도 화려했다. 영화 '분노의 질주', '캐리비안의 해적', '미션임파서블', '007시리즈' 등 유명 할리우드 작품의 특수영상촬영에 참여한 기업 XM2 대표인 스티븐 오 감독과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은 바비 가라베디안 감독, 매튜 브론리워 프로듀서, 썬 킴 프로듀서 등이 심사를 맡았다. 이가영 감독은 상금 200만 원과 할리우드 영화 촬영지 탐방 및 오 감독과의 1:1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얻었다. 주최 측은 미국행 왕복 항공권과 5박 6일 간의 체류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8월 26일,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제25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축제'에서는 연기와 학생들의 뛰어난 기량이 빛을 발했다.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축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회로 동서대학교와 경성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예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등 전국 11개 대학 동아리에서 총 26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농악과 탈춤놀이 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 자리에서 쟁쟁한 경쟁 상대들을 제치고, 연기와 '시우터'²는 가장 우수한 실력을 선보이며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김유민 학생은 그 안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여 개인연기상인 으뜸상을 수상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에 열린 제24회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에서 금상을 받은 이후, 3년간 쉬지 않고 맹연습한 결과다.



2

“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의 길을 밝히다
”

-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 K-슈브랜드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 대상
- 동남권 LINC 3.0 창업 노마드캠프
& 아이디어 경진대회



1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창업의 길에 뛰어드는 청년들의 창업 능력 향상을 위해 창업지원단은 창업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많은 창업 관련 공모전과 경진대회 수상이라는 커다란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행사인 '부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대표적이다. 지난 9월 30일에 열린 이번 대회에는 총 67개 팀, 205명의 부산지역 고등학생 및 전국 대학생이 참가했다. 이 중 동서대학교 창업팀 v603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학생들의 가능성은 물론, 동서대학교 창업 지원 시스템의 우수성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공학과 주현태 학생이 팀장으로 있는 v603 팀은 페마스크를 활용한 친환경 건설 재료 활용 및 페마스크 AI 인식 로봇 아이디어를 선보여 심사위원들과 청중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는 LINC 3.0사업단 창업교육센터의 창업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지원단의 실전창업지원 프로그램(아이

템 멘토링, 발표자료 고도화 등)을 통해 구체화시킨 결과물이다. 벅스코에서 10월 21일에 열린 '제1회 K-슈브랜드 스타트업 챌린지 공모전'에서는 Q College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했다. 신발브랜드 런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 공모전은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고 네이버 웹툰 '디나운스'와 협업을 통해 개최되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수상한 International Studies과 장형준 학생과 시각디자인전공 배소연 학생은 '물이 닿으면 기후 위기를 상징하는 동물이 나타나고 마르면 없어지는 매직 운동화를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가 오는 날 아이들에게 매직 운동화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알린다는 좋은 취지가 수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수상의 기쁨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2022 동남권 LINC 3.0 창업 노마드 캠프&아이디어 경진대회'로도 이어졌다. 동서대학교를 비롯해 13개 대학(경남대, 경상국립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신

라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경진대회는 대학별 경진대회와 대학 간 혼합팀 경진대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 생태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별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융합학과 유태정, 경영학과 황승환, 관광컨벤션학과 옥창화-이준서·최유미 학생으로 구성된 동서대팀이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시분리수거함'을 발표해 우수상인 LINC 3.0 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대학 간 혼합팀 경진대회에서는 동서대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팀이 각각 최우수상(부산창조경혁신센터장상)과 우수상(LINC 3.0 협의회장상)을 수상했다. 앞으로도 동서대학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경진대회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청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 사랑의 온도를 높일 때입니다”

12월 1일 송상현 광장에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여파, 전쟁, 물가상승, 각종 사고 등으로 지갑도, 마음도 얼어붙기 쉽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동서대학교 나눔의 온도도 여전히 뜨겁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곳곳에서 따스함을 전하고 있는 동서대학교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다

(주)다경산업 Q College에 도전 장학금 전달
(사)부산걷는길연합회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기금 전달



인재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동서대학교는 인재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지역사회의 손길 이 어는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를 보냈다.
9월 21일에는 플라스틱 종합 재활용 회사인 (주)다경산업이 Q College에 도전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들이 기부한 도전 장학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친환경 아이디어 제품을 제시하는 공모전에 사용된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중 제품화가 가능한 것은 실제 제품을 만들어 Q College와 공동 판매한 후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장학금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전 장학금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 학생-학교-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순환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월 7일에는 (사)부산걷는길연합회가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 운동처방학과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사)부산걷는길연합회는 2021년 이후 매년 클래스셀링 개설과 시니어운동처방학과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2022년 1학기부터는 도보관광 기획 및 실무실습 심화라는 주제로 클래스셀링 수업을 개설(별도 5,000,000원 기탁)해 시니어운동처방학과 학생들과 함께 부산갈맷길 도보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산갈맷길 시점과 종점의 대중교통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양 기관은 '부산갈맷길 관광자원화 공동 연구', '시민참여 보행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운영', '세계걷기총회(WTC) 유치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구성 등 부산 도보 관광 산업의 활성화' 등 부산갈맷길을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협력하고 있다.



이웃들에게 따듯한 겨울을 선물하다

총학생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연말 김장철을 맞아 총학생회에서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기획했다. 11월 11일 총학생회의 주최로 사상구 청년연합회 주례 2동 주부클럽, 주례 3동 적십자회 자원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가정(200가구)에 전달할 김치를 담갔다.
정성으로 담긴 500만 원 상당, 1,400kg의 김장 김치는 모라종합복지관 관할 100가구, 주례 2동과 3동 100가구에 전달됐다.
추운 겨울 김장 김치를 담가 먹기 힘든 여건의 취약계층에 김치를 전달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은 잠시라도 반찬 걱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랑의 김치 담구기 행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다

간호학과 박정하·이윤복 교수,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봉사

물질적인 것만이 나눔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다.
간호학과 박정하·이윤복 교수는 여름방학이던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시 해외봉사단에서 자신들이 가진 의료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부산시 간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캄보디아 해외봉사단에는 동서대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교수 3인과 학생 5인이 참여했는데, 그중에서도 박정하 교수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박정하 교수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호산나 학교와 썬아엑 보건소에서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관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윤복 교수는 캄보디아 프놈펜시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제개발협력학회(KAIDEC)의 현지 지역조사원으로 활동했다. 두 교수는 캄보디아 지역 활동 결과를 KOICA 민관협력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프놈펜 지역의 응급상황대처능력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하 교수와 이윤복 교수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해외지역봉사단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동서대학교 BLS(기본심폐소생술 과정)와 KALS(전문심폐소생술 과정) 교육을 간호학과 학생과 지역의료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DSU TODAY



장제국 총장, 제10대 총장 연임

동서학원은 2022년 12월 26일 이사회를 열고 제10대 총장에 장제국 총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대학운영 노하우와 정치·경제·문화·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쌓은 오랜 경험과 역량을 검증받은 장제국 총장이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특히 특성화 분야 명품화, 해외 유학생 2,000명 유치, 각종 정부사업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린 그의 업적을 인정한 것이다.

장제국 총장의 새 임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말까지 4년간이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를 거쳐 미국 시라큐스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번 연임으로 대학 발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

제5회 부산극동포럼에서 장제국 총장 한일관계 새로운 방향성 제시



10월 25일 부산극동방송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회 부산극동포럼에서 장제국 총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미래를 조망하고, 나라·지역·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서 장제국 총장은 ‘한일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장 총장은 그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로서 한일 차세대 학술 포럼 대표를 비롯해 한일 포럼 운영위원 등을 맡아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그는 깊고 넓은 한일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한일관계의 과거



를 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또한 장제국 총장은 과거를 벗어난 한일 미래 관계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북핵 문제 등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현 국제 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경색된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고 이것을 통해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 재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형 일학습병행사업’에 재선정된 동서대학교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사업을 운영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진행해 온 그간의 사업 운영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약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IPP형 일학습병행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장기현장실습 554명, 일학습병행 138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가입

동서대학교는 부산시 북구에 위치한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사무국은 6월 27일 동서대학교에 국제관광기구 회원 가입 증서를 전달했다. TPO는 관광을 통해 서로 친해지고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6개국 136개 도시와 54개 민간단체(2022. 1. 기준)가 활동 중이다. 이번 가입 승인으로 아태지역 관광 분야 이해관계자들과 관광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INC 3.0사업단, ‘2022 산학협력 EXPO’에서 교육부 장관상 수상

LINC 3.0사업단은 11월 2일 ~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2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해 2개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술협력 부문에서 ‘시 스타트업과 패션 중견기업 간 상생 프로젝트: 시 패션 스마트미래 개발 및 백화점 적용’으로 장려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학과 융창원 교수가 표창(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위탁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약처장 표창 수상

동서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인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6월 23일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에서 유공센터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 해운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등 현장 맞춤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실감형 교육 자료(VR)를 개발해 부산시 어린이 급식소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주한 헝가리 대사 방문

주한 헝가리 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헤이(H.E István Szerdahelyi)가 11월 15일 동서대학교를 방문했다. 새르더헤이 대사는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과 장제국 총장을 접견해 양국 교육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학내에 재학 중인 다국적 학생들을 만나 헝가리의 역사, 문화, 지리, 교육 등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현재 동서대학교는 헝가리의 세인트이스트반대학(Szent Istvan University), 부다페스트 비즈니스스쿨(Budapest Business School)과 수년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경제대학 이사장 일행 방문

베트남 국립대인 호치민경제대학(University of Economics HCMC) 응우옌동퐁(Nguyen Dong Phong) 이사장 일행이 11월 11일 동서대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동서대학교 김정선 총괄부총장, 한경호 국제처장, 안병진 디자인대학 학장 등과 함께 양국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학생 교환 프로그램, 디자인 분야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활발히 교류하기로 협의했다. 논의를 마친 후에는 특성화 전공 시설을 둘러보며 빠른 시기에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DSU TODAY

**한·중·일 협력사무국(TCS)과 협약**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은 동서대학교와 12월 2일 뉴밀레니엄관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동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중·일 3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TCS에서 일할 인턴을 채용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천하면 사무국에서 인턴을 선발하게 된다. 협약식 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TCS 인턴십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도 개최했다. TCS는 3국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 문화비전 실현을 목적으로 2011년 서울에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밀양시와 업무협약**

밀양시는 동서대학교와 11월 16일 밀양시청에서 밀양르네상스 완성을 위한 문화예술 중심의 지속 가능 콘텐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문화예술·관광·미디어·IT 분야 등 지속 가능 콘텐츠 개발 및 상호교류', '국·시책사업 공동추진', '행사·축제의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밀양시는 주요 현안사업인 명품 의열거리 조성과 연계해 도시재생·디자인·문화·관광 등의 분야에 신규 콘텐츠 개발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EMK 뮤지컬컴퍼니와 산학협력**

동서대학교와 뮤지컬 엘리자벳, 레베카 등 국내 정상급 뮤지컬을 제작한 공연기획사 (주)EMK뮤지컬컴퍼니는 11월 24일 본관 글로벌룸에서 지역 뮤지컬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그 첫 프로젝트로 11월 25일과 28일 뮤지컬과 재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개최해 신인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작품에 투입하는 기업 맞춤형 오디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선발된 신인 배우는 카이, 김소향 등이 소속된 EMK엔터테인먼트에 합류하여 기량을 연마하고 오디션을 통해 2024년 작품부터 참여할 수 있게 된다.

**LINC 3.0사업단,****가상현실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메타버스, XR, VR 기술의 발전을 위해 LINC 3.0사업단은 관련 기업들과 연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21일에는 디지털 메타버스 전문 기업 (주)이브이알 스튜디오와, 10월 21일에는 국내 최대 VR기업인 (주)스코넥엔터테인먼트, 부산 대표 VR기업인 (주)유캔스타와 협약을 맺었다. 가상현실 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협약은 메타버스와 XR, VR은 물론 게임 산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공동 기술개발 운영 및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

문화 콘텐츠 발전을 위해 LINC 3.0사업단은 기업협업센터(ICC)의 신산업창출협의체를 각각 출범했다. 8월 10일에는 CV 디자인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이 주례캠퍼스에서 열렸으며, 같은 날 센텀호텔에서는 XR콘텐츠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DX 투어리즘 ICC 신산업창출협의체 출범식은 8월 29일 센텀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앞으로 세 협의체는 참여 기업 확대 및 메타기술 기반 협력,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공유 협업 활동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요나스 스벤슨, GIC 대표 초청 강연**

GIC(Global Innovation Center) 세계 대표 겸 GSF(Global Sustainability Fund)의 대표인 요나스 스벤슨(Jonas Svensson)의 강연이 9월 1일 디자인대학에서 진행됐다.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스벤슨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가지에 대해 소개하며 기후변화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SDGs에 관계되는 총 사업 가치들에 대해 강조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PASTEL 창업교육 IP경진대회**

'2022 PASTEL 창업교육 IP경진대회'가 11월 3일과 4일 경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진행됐다. LINC 3.0사업단은 PASTEL 창업교육은 동서대학교만의 맞춤형 창업교육으로 창업동아리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부(전공) 특성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1박 2일간 열린 창업 캠프는 '저작권의 개념 및 법적 보호 방법'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확대를 위한 실전적 창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지식재산권 경진대회를 연계해 특허검색과 출원 등의 과정을 더 쉽고 즐겁게 경험하도록 구성해 진행했다.

**2022 한국어 말하기 대회**

International College는 11월 16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22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영어로 공부하는 International College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공부할 동기를 부여한다. 올해 대회는 일본, 중국, 베트남 3개국 21명의 유학생이 참가해 '내가 경험한 부산', '나의 캠퍼스 생활' 등을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냈으며, 그중 캠퍼스아시아학과 루카이양 학생(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이 '소중한 캠퍼스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ESG+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창업지원단은 11월 2일 '2022 ESG+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20개 팀이 참가했으며, 최종 9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4팀)에게 시상품과 상장을 수여했다. 올해 대상의 주인공은 '초고층 건축물 및 철골구조 연마로봇 시스템' 아이템을 출품한 건축공학부의 행운목(김건)팀이 선정됐다. 또한 이번 대회는 ESG 경영을 실천하는 '코끼리 공장'의 이채진 대표 창업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ESG경영과 나눔을 주제로 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니버시티 파이널 챔피언십 in 부산**

'2022 유니버시티 파이널 챔피언십 in 부산' 대회가 11월 5일 소항아트홀에서 열렸다. 대한체육회와 (사)대한보디빌딩협회 승인 대회로 한국대학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이 주최하고 LINC 3.0사업단과 체육학과가 공동 주관한 공신력 있는 대회다. 전국 50여 개 대학에서 1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운동처방학과 배유림 학생이 -163cm이하급 비키니 피트니스 부문 우승을, 체육학과 최용국 학생은 보디빌딩 -80kg급에서 22위, 체육학과 김종원 학생은 맨스포트모델에서 6위를 차지했다.

**수영구 홍보캐릭터 '모리' 개발**

동서대학교와 부산시 수영구는 업무협약을 통해 수영구 홍보 캐릭터 '모리'를 개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LINC 3.0사업단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클래스셀링®을 통해 캐릭터를 개발한 민·관·학 협치의 결과물이다. '모리'는 광안리 해변의 모래와 수영구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형상화해 제작한 독창적인 캐릭터다. 광안리 밤바다를 수놓은 불꽃에서 떨어지거나 불씨들이 광안리 해변의 모래와 합쳐져 생명을 갖게 된다는 설정으로 탄생했다.

**문미경 교수, '부산 R&D주간'****부산 지역연구개발 우수성과상 수상**

SW중심대학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문미경 교수가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웨스턴조선 부산에서 열린 '2022 부산 R&D주간'의 행사 중 부산 지역연구개발 우수성과상 부문에서 부산광역시시장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주관으로, 부산의 혁신 성장을 위해 시민이 지역 R&D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혁신 주체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R&D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 과학기술 소통의 장이다.